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1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5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과장 주소령(044-203-4080), 이예원 사무관(4086)

2016년 투자유치활동 중국에서 개시

- 한·중 FTA 발효 계기 중국 투자유치활동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한·중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 활용 극대화를 위해 올해 **첫 투자유치활동**을 **중국 베이징과 상하이**에서 전개한다.

○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FDI)가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* 중국이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부각된 만큼, 한국의 **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세계적인 시장 진출형** 투자모델 발굴과 **중국 내수시장 수출연계형** 투자유치를 위해 이번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한다.

* 중국 FDI추이(신고, 백만달러) : ('10)414→('11)651→('12)727→('13)481→('14)1,189→('15)1,978

○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산업부 김영삼 투자정책관을 대표로, 한·중 FTA 활용 및 식품·문화콘텐츠·고급 소비재(패션, 화장품 등) 분야의 투자 협력방안을 중점으로 1.25.(월)~1.28.(목) 4일 동안 진행한다.

□ 산업부는 베이징에서 **농식품 분야 신시왕그룹, 패션기업 랑시, 안방보험 등 중국 대표기업의 30여명을 초청**해 우리나라 환경 전망과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**한·중 FTA 투자협력 포럼을 열었다.**

- (일시·장소) 1.25일(월) 16:00~20:30, 주중 대사관저 대연회동
- (참석자) 중국기업(30명), 중국한국상회(10명), 중국 상무부·CCPIT 등 70여명
- (주요내용) 한국 투자환경 및 중국 해외투자정책, 한·중FTA 활용 유망분야 및 전망

○ 발제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김기헌 소장은 중국 콘텐츠시장을 세계 3위 규모('14년 1,474억달러)의 유망한 시장으로 전망하며 중국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**중국자본과 한국콘텐츠가 결합한 투자 협력모델**을 제시했고,

- 하이 투자증권 손효주 연구원은 소비재 분야에서는 특히 화장품, 의류 등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높아 **중국의 유통망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한 합작투자**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

* 중국 수입화장품 중 한국제품 비중추이(%) : ('12)7.9→('13)10.2→('14)9.8→('15.11)22.8
한국 의류브랜드와 중국 유통망 결합사례 : FILA(중국Anta), HAZZYS(중국 바오시냐오)

○ 이번 투자협력 포럼에는 중국기업과 양국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,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1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무역·투자 협력 모델을 논의하고, 양국 주요 기업인간 교류·협력의 장을 마련했다.

□ 또한, 산업부는 상하이에서 한·중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·식품·의료 분야 등의 중국 잠재투자가 100여명 대상 **한·중 FTA 활용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**한다.

- (일시·장소) 1.27일(수) 10:00~13:30, 상하이 힐튼호텔
- (참석자) 중국 잠재투자가 100여명, 산업부 투자정책관, KOTRA 부사장 등
- (주요내용) 한·중FTA 활용 무역·투자 모델, 유망분야 산업별 현황 및 전망 등

○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·중 FTA를 활용한 양국간 무역·투자 연계모델, 한류소비재(화장품, 의류)·문화콘텐츠·식품 등 산업별 현황과 전망, 한국투자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한다.

- 특히,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투자유치의 전초기지로서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를,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분야 글로벌시장 중심으로서 익산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며 중국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.

□ 산업부는 한·중 FTA 발효 직후 전개한 이번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중국기업들의 한·중 FTA 활용방안 및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**무역·투자 협력 증대로 이어질 것**이라고 전망하고,

○ 앞으로 고급소비재, 식품, 문화콘텐츠 등 **한·중 FTA를 활용한 수출연계형 중국기업 투자** 및 **중국 관광수요에 기반한 복합리조트 투자**를 중점분야로 선정, **연내 25억 달러 유치**를 목표로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주소령 과장(☎ 044-203-4080), 이예원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1-25 11:13:00